

## 영혼의 몸

글 : 카롤 앙드레아니

번역 : 구모덕

용해되는 도기와 자기의 형태들, 사라져가는 얼굴들, 뜨거운 비가 되어 내리는 유약의 빗깔들, 이성적인 것에 맞선 김명주 작가의 도예 세계는 존재의 신비,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에 우리를 초대한다. 손바닥과 손가락을 이용해서 매우 섬세하게 흙으로 소조하는 작가는 인간의 영혼과 고통, 손으로는 만질 수 없는 것을 빚어낸다. 진실에 대한 간절한 열망으로, 우연과 통제의 균형 속에서 작가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점토와 유약을 사용하며 이를 실행해 나간다. 영혼이라는 것, 우리 모두가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실은 아무도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간파하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보여주기. 이는 회화와 조각이 자주 시도하곤 하는 것이나 본질적으로는 시인과 음악가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시간처럼 테두리를 만들지 않으며, 식별할 수 있는 것과 인지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자유로운 예술과 관계되는 것이다. 꿈과 같이 움직이는 바로 그곳에서 김명주 작가는 인간과 자연을 연결하는 방식을 통해서 형태가 없는 것에 매우 실체적인, 특히 바로크적 형태를 부여하고, 내부의 움직임,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불안을 읽어내며 모험을 감행한다. 영혼과 생기와 동물은 아시아 문화가 하나로 여긴 근간을 가지고 있다. 영혼은 초월과 신비의 세계에 속해 있다. 도예가 김명주는 그 상상할 수도, 붙잡을 수도 없는 신비로운 실체를 그리거나 조각하는 대신 다만 그의 존재를 드러내 보인다. 육체와의 지속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의 존재를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것에 살을 입히는 것이다. 흙에서는 흐릿한 인간의 형상들이 나타나고, 강렬한 백색 위에 유색의 유약이 흘러내려 만들어진 흔적들은 피, 눈물 등의 체액들을 아련히 떠올리게 한다. 적어도 우리는 그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다. 괴로움과 고통의 바퀴에 짓이겨진 듯한 유기적 형상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남아 있고, 그 형상들 안에는 부채가 존재한다. 형태 없는 작은 덩어리들의 주름들 안에서 눈이 녹고, 그 속에 시선이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그러한다. 그리고 변신을 준비한다. 곡선과 굴곡은 등과

어깨를 연상시킨다. 알 수 없는 현실들, 그 속에 작은 머리들 여럿이 유약에 들러붙어 흘러내리기도 한다. 방황과 고독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작은 인물들 또한 등장한다. 고문 받는 몸을 보여준 루이즈 부르주아의 세계에서와 같이, 김명주 작가 역시 자신의 작품들을 심리적 이유로 설명하려 하지 않으며, 작가 스스로도 그러한 표현 방식과는 거리를 둔다. 작가가 만들어내는 고뇌, 불안, 슬픔, 버림과 고독의 이미지들은 어떤 한 커다란 진실의 형상들이다. 존재의 훼손, 그 안으로 천천히 녹아들 준비가 된, 타자에게 다가가는 버려진 머리는 인간애의 깊이를 보여주기에 사랑은 아직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다.

1973년 한국에서 태어난 김명주 작가는 만 18세에 홍익대학교에 입학해 도예 공부를 시작한다. 생활을 위해서 맥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일을 하지만 자신의 창작 작업을 할 때에는 연필로 그림 그리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다. 이는 자신이 느끼는 것, 불안과 또 다른 감정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평면에서 입체로 작업을 확장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다. 그 후, 여러 개인적 상황들로 2001년 프랑스에 가게 된 작가는 파리에 있는 아주 작은 작업실에서 수년 간, 동양의 애니미즘과 유럽 문화의 기이한 조화로 태어난 동물의 몸, 인간의 얼굴, 식물의 머리칼을 가진 시적인, 작은 형상들을 만든다. 그리고 일본의 시가라키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브뤼셀의 캄브르 고등 시각 미술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으며 자신의 작품 세계에 찾아온 새로운 변화를 맞이한다. 꿈으로 충만해진 작품들을 창작하는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2013년 작가에게 뮤지엄 상을 수여한 스위스 제네바의 아리아나 뮤지엄은 작가의 작품을 한 점 소장하고 있다. 최근 몇 해 동안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더욱 견고해진 작가의 작품은 현대 도예 세계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